

비정규직 3개 법안 전격 국회 통과 계약직 2년이상엔 정규직

민노당 “기간제 남용 제한을” 강력 반발

국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과경근로자보호법, 노동위원회법 등 비정규직 관련 3법을 비롯해 34개 법안을 처리했다. <관련기사 5면> 임체정 국회의장은 이날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본회의장 발언대를 점거한 가운데 비정규직 관련 3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에 붙였고 이들 법안은 재석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비정규직 관련법은 지난 8월말 현재 545만여명(노동계 추산 850여만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함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관련법의 골자는 기간제 및 과경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각 2년으로 하되 2년을 초과할 경우 ‘무기근로계약’(정규직)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불법과거 기간 2년을 넘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구제 신청

을 할 수 있게 하며, 노동위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지난 2004년 11월8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년여만 이고, 지난 2월27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9개월여만이다. 민노당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기간제(계약직) 사용 사유 제한과 불법과거선 고용의제(무기근로계약) 등이 정부 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新黨 반대...우리당 지킬 것”

盧大統領 “명분·실리 없는 지역당 회귀 안돼”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당적을 유지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당을 하는 것이 당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몇몇 청와대 참모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신당을 반대한다. 말이 신당이지 지역당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을 지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대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신당 세력에 대한 전면적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90년 3당 합당때도, 95년 통합민주당 분당때에도 나는 지역당을 반대했고, 지역당 시대를 청산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창당을 지지했다”며 “다시 지역당 시대로 돌아갈 수 없으며, 지역당으로는 어떤 시대적 명분도 실리도 얻을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나는 열린우리당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이만한 정치발전도 소중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社告

韓銀 ‘겨울 경제캠프’ 모집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대상...참가비 무료

광주일보사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겨울방학을 맞아 광주·전남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2007년 겨울방학 청소년 경제캠프’를 개최합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전문 강사들의 화제이야기와 게임·영화·골

든벨을 활용한 재미있는 경제 및 자산관리 노하우 등이 소개되고, 지역 산업현장체험도 실시됩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기념품도 제공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가대상 = 광주·전남지역 중학생
- 참가인원 = 매회 45명 내외(총 2회)
- 기 간 = 1차 : 2007년 1월 3일(수)~5일(금)(무박 3일)
2차 : 2007년 1월 9일(화)~11일(목)(무박 3일)
- 장 소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참 가 비 = 없음, 점심·간식 제공
- 신청기간 = 12월 8일(금)까지
- 신청방법 = 한은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www.bok.or.kr/gwangju) ‘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뒤 이메일(gwangju@bok.or.kr)이나 팩스(062-382-8164)로 제출
- 문 의 = 한은 광주전남본부 기획홍보팀(062-601-1105,1109)

光州日報社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타인능해(他人能解):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퍼갈 수 있다



붓는 것은 쌀 한 되 남짓이지만, 퍼가는 손에는 이웃 사람까지 더해진다. 광주시 남구 월산 5동의 한 주민이 동사무소에 설치된 뒤주에 가져온 쌀을 붓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현대판 ‘운조루 뒤주’ 세밀 데운다

광주 1년새 5개동으로 확산...이웃돕기 새 모델로

현대판 ‘운조루(雲鳥樓) 뒤주’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새로운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작은 정성을 보태는 것은 여느 이웃돕기와 똑같은데, ‘돕는 대상’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인간적이다. ‘운조루’의 주인이 뒤주를 곳곳에 마련, 퍼가는 사람이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했다. 마음 씀씀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운조루의 뒤주’는 지난 1월 광주시 서구 금호 1동 사무소에서 처음 시작했다. 동사무소 한쪽에 쌀 뒤주가 놓이자 일주일 만에 130여 명이 참여했다. ‘밥은 이의 자존심을 고

려한 이 운동이 눈길을 끌자, 다른 동사무소들도 동참하기 시작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남구 ▲주월동 ▲백운 2동 ▲월산 5동, 서구 ▲금호 1동 ▲화정 3동 등 모두 5개 동사무소에 뒤주가 있다. 뒤주의 운영 방식도 바뀌고 있다. 처음에는 동사무소에서 설치·운영을 맡았지만,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행편을 공무원들보다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민들이 앞장서고 있다. 남구 월산 5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의 쌀 나눔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8월17일 동사무소 입구에 ‘사랑의 쌀 뒤주’를 마련

했다. 이쌀로 매일 5~6명의 영세민이 생계를 잇는다. 주월동과 백운 2동은 주민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올 3월부터 ‘효사랑 나눔의 가게’라는 별도의 주민자치 사회복합협의회가 쌀 뒤주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 뒤주에는 지금까지 쌀 980kg(639kg) 102만원의 현금이 담겼다. 이곳에선 매달 100여 세대가 뒤주에서 쌀을 퍼가고 있다. 화정 3동의 영세민은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동사무소 측은 이런 점을 감안, 지난 3월 뒤주 설치 후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 정기

▲운조루의 뒤주=영조 52년(1776년), 낙안군수 류이주(柳爾耆)가 세운 구례군 토지면 오미리의 운조루(雲鳥樓) 곳곳에 놓인 뒤주. 구멍을 여닫는 마개에 ‘누구든 마음대로 쌀을 퍼갈 수 있다’는 의미의 ‘타인능해’(他人能解)라는 글씨가 있다.

적으로 쌀을 건네주고 있다. 이런 간단한 소식에 동참하는 주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공무원 김모(49·서구 금호 1동)씨는 신문에서 기사를 읽은 뒤 최근 석 달째 매달 20kg 쌀 5포대를 보태며 이웃 사람에게 동참했다. /서민표기자 viola@

도하 아시안게임 오늘 개막



韓, 3회 연속 종합 2위 목표... 日과 점전

15회 하계아시안게임이 1일(현지시각) 카타르 도하 칼리파스타디움에서 개막돼 보름간의 열전에 돌입한

다. <관련기사 22면> 지난 1974년 테헤란아시안게임 이후 32년 만에 중동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아시아 45개국에서 선수와 임원 1만 500명이

참가해 39개 종목에서 모두 424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된다. 이날 개막행사는 세계적인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60·스페인)와 홍콩의 인기배우 성룡(45) 등 톱스타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풍성한 볼거리도 마련했다. 아시안 게임을 밝혀줄 성화는 지난 10월 9일 DOGOC 조직위원

장인 세키카 하마드 알 타니 카타르 국왕 후계자가 직접 채화한 뒤 인도, 한국, 필리핀, 일본, 중국, 마카오 등 15개국을 돌아 지난달 25일 알 사발 항구로 귀환했다. 37개 종목 832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금메달 75개로, 3회 연속 종합 2위를 목표로 세워놓고 있다. 세계 최강 전력인 중국이 최소 150개 이상의 금메달을 휩쓸어 종합우승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위 자리를 놓고 일본과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진표기자 lucky@

받는 기쁨, 주는 즐거움 -

금강·랜드로바 20%세일

12월 1일~12월 10일까지(10일간) / 전국매장 동시 실시

받는 기쁨에서

주는 즐거움까지

금강제화 상품권이 있어 더 행복한 순간!

LANDROVER PGATOUR LPGA renoma Bally 금강제화

전국 130개 도시 400여개 매장 어디서나 편리하게

*금강제화 상품권 구매 시 20% 할인 혜택

*문의: 062-228-0180